







##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자!

전봉준은 마당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. 조금 있자 아버지가 땀을 닦으며 돌아왔어요.

“아버지, 다녀오셨습니까?”

“오냐, 조 군수는 참으로 덕이 없구나. 오로지 자기 뱃속 채울 생각만 하고 있어. 곡식을 빼앗기고 굶어 죽는 농민들은 뒷전이더구나. 나라도 어떻게든 조 군수의 악행을 막아 보려고 농민들에게 가서 자세히 얘기를 듣고 왔단다.”

“그래도 몸조심하십시오. 그런 놈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깁니다. 자기를 방해하는 걸 보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.”

“내 걱정 말거라. 그나저나 너는 동학 접주<sup>★</sup>로 아주 잘하고 있다며? 네 어머니도 하늘에서 너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겠구나, 하하하!”

웃는 아버지의 볼이 흘쩍했어요. 전봉준은 가슴이 찢해졌어요.

‘돈을 좀 모으면 아버지께 꼭 맛있는 쌀밥과 고깃국을 해 드려야지.’

전봉준이 아버지께 효도하겠다는 결심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.

이웃 주민이 급하게 전봉준에게 달려왔어요.

“접주님! 큰일 났습니다. 어르신께서 잡혀갔습니다! 조 군수가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합니다!”

★ 접주 동학 안의 조직인 ‘접’의 우두머리



















